

번역의 학문화를 추진하는 한국번역학회

한국번역학회 이끄는 서강대 김용권 명예교수

‘번역은 제2의 창작’이란 말은 번역가가 창작자만큼 열정을 바쳐 번역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다. 그러나 최근 쏟아져 나오는 다수의 번역서는 찬사를 듣기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알량한 재능만 믿고 번역서를 펴내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독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같은 일을 하는 번역가는 혼쫌날 듯하다. 지난 10월 30일 국내 학자 5백여명이 모여 발족한 한국번역학회(회장 김용권, 69, 서강대 명예교수)는 번역의 학문화를 추진하는 한편, 오역에 대한 비판도 강도 높게 펼칠 계획이다.

“90년대 들어서 번역을 학과 과목으로 개설한 대학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번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지요. 우리 학회는 번역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나아가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오역



주민자치 도서관의 밑거름, 아파트문고운동

아파트문고만들기 운동본부 전지성 사무총장

1980년대 말, 성산동 시영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황당한 경우에 직면했다. 관할도서관이 한번에 가는 버스도 없는 종로도서관이었던 것. 주민들은 이런 불편함을 개선해달라고 민원을 냈고 급기야 아파트 단지 내에 종로도서관 성산문고가 생겼다. 바로 아파트문고 만들기 운동의 효시가 된 사건이다.

“93년 책의 해에 통과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는 5백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문고, 즉 작은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라 애시지만, 아파트문고의 법적인 토대는 이미 갖춰진 것이죠.”

공립도서관·세마을문고·신협문고 등 관 주도의 도서관을 제외한, 전국의 작은 도서관들의 모임인 한국작은도서관협회의 전지성 사무총장(42)은 아파트문고의 이점으로 자체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는다. 부



예비엄마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임산부 전용 도서관 <토끼와 여우> 운영하는 장우식·장은주 부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임산부와 아기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는 곳도 없어요. 임산부를 위한 전용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산부 전용 도서관 <토끼와 여우>는 장우식(41)·장은주(31) 부부가 운영하는 사설도서관이다. 임신·출산·태고·육아와 관련된 도서 6백여권과 비디오테이프 1천5백개, 태고 관련 음악CD를 갖추고 있다. 열람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서관은 예비엄마들로 빼곡하다.

장은주씨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남달리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두번의 유산 후 어렵게 얻은 아기가 자궁의 임신이었다. 인공유산술을 하라는 병원의 권유를 뿌리치고 힘들게 아기를 낳았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곳도, 친절할 상담을 받을 곳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곧 깨달았다. 간호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우선 상담전화를 개



**“90년대 들어서 번역을
학과 과목으로 개설한
대학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번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지요.
학회는 번역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나아가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오역에 대한 비평도
펼칠 계획입니다.”**

에 대한 비평도 펼칠 계획입니다.”

김교수는 번역의 학문화 추진을 먼저 강조한다. 번역은 이미 하나의 학문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지만, 표본화된 실천적 방안이 없는 까닭으로 번역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번역의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술적·기술적 표본을 만들 계획이다.

“번역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동안 많은 역자들이 원본을 오역해 의미를 잘못 전달해왔습니다. 이는 역자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학회는 번역가의 자존심과 긍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그동안 학계나 출판계에서 번역가를 ‘쟁이’ 정도로 대해온 것이 사실이다. 번역가 스스로 노력하는 토대를 마련해 번역의 가치를 높이고, 이에 따른 번역가의 사회적 신분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하는 일은 곧 출판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김교수는 앞으로 분야별 ‘우수 번역물 추천’ 사업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회의 활동에 따라 국내 번역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 오원진 기자

**“각 아파트 단지마다
전문성을 띤 문고를
설치해 다른 단지와
교환한다면,
신도시 지역에서는
작은 도서관이라 해도
웬만한 책은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대사업이나 아파트관리비에서 자치회나 부녀회 쪽으로 들어오는 공동기금의 1퍼센트만 도서구입비로 책정해도 웬만한 신간은 주민들끼리 서로 돌려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단지에는 공동공간이 많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문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문화가 아직 짧다보니 문제도 많은 편입니다.”

예컨대 자치회나 부녀회가 운영하다보니, 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 또 주민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책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나 책을 돌려주지 않아도 크게 신경쓰지 않아 갈수록 책이 줄어들어는 현상도 생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모범사례로 창원지역 아파트 단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아파트단지에는 시에서 민간 위탁을 줘서 문고를 운영토록 했습니다. 전문사서가 상주하기 때문에 문고의 운영이 유동적이지 않죠.”

전 사무총장은 그간 아파트문고만들기 운동본부에서 쌓은 연구성과가 더 많은 아파트문고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작은도서관협회에는 이 아파트문고만들기 운동본부 외에 책 읽는 사회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 좋은 책 선정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 김연수 기자

**“우리나라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더군요. 임신부를
위한 전용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설했다. 전화를 받다보니,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남편을 설득해 사재를 털고,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 공간을 마련했죠. 일일이 서점에 가서 책을 읽어보고 양서만 골랐습니다. 그때는 절실함 때문이었는지 정말 다리 아픈 줄도 몰랐어요.”

지난 6월 드디어 개관. ‘토끼’ 같은 아기를 키우려면, 엄마의 ‘여우’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토끼와 여우>라고 이름지었다. 입소문을 통해 5개월 동안 4천여명의 회원이 생겼다. 회원에게는 아기 생후 일년까지 무상으로 자료를 대여해주고, <토끼와 여우>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의와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회원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딸이나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도 <토끼와 여우>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을 때 힘을 얻습니다.”

이들 부부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다. 임신·출산 전문잡지 <태교>를 월간으로 발행하고, 임신·출산 교육과 연계된 일관성있는 육아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언젠가는 임신부와 아기를 위한 복합문화건물을 세우겠다는 야무진 꿈도 갖고 있다.

- 김정은 기자